

창간호  
2007년4월16일

# 독도소식지

독도사수연합회  
발행인 독도 이상훈  
010-5844-4485

## 창간호를 내면서

이 소식지는 독도문제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분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창간호에서는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 했고 이제는 독도가 위험함을 알리기 위하여 꼼꼼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 독도는 지켜 질 것이고 외면을 한다면 독도는 일본 땅이 될 것입니다. 애절한 심정으로 창간호를 냅니다. 독도 이상훈

## 독도의 위급함

독도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길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해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해 왔습니다.

저 혼자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독도를 지키려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독도사랑, 독도를 지키자, 등등 많은 사이트를 방문해보아도 어떻게 하자는 사이트는 너무 없습니다. 먼저 독도를 지키자면 지킬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장기를 태우며 일본을 규탄한다고 독도가 지켜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1954년에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재판을 하자는 요구를 했으나, 우리 정부가 일언지하에 거부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우리 정부가 국제재판을 거부를 할 수 없게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제재판을 원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독도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며, 독도에 자유입도와 주거 자유가 되어야 하며, 독도를 관광지로 만들어 독도주민이 관광수입으로 살아 갈수 있게 해야 하며, 열악한 조건에서 독도를 지킨 의용수비대를 최고유공자로 모셔야 하며,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되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위의 사항이 이루어진다면 국제재판을 하더라도 불리 할 것이 적어 진다고 보여 집니다.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단결하여 이 운동을 하면 온 국민이 뜻을 모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일본은 체계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여, 세계 각국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독도로 표시 된 것은 4천개도 안 되고, 다케시마로 표시 된 것은 4만개 정도라고 '뱅크'는 2004년도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독도를 지키기에 왼쪽에서 제시한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해야지요! 좋은 방법을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독도수호자 여러분 토론하는 단결된 모습을 정부에 보여줍시다.

독도로 본적을 이전 하고 생업 외 거의 전부를 독도에 바치는 독도 이상훈 올림 (4월16일)

## 日本은 어떻게 독도를 뺏으려하나?

2006년 5월 17일 (수) 11:54 SBS

### 일 자민당, '독도 문제 합동회의' 신설

일본 자민당은 16일 독도 문제 회의를 열고 국방과 국토, 외교, 해양 정책 특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독도문제와 관련해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결론 내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 정부가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각부에 '독도문제대책실'을 설치하고, 독도 문제 해결 촉진을 소관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자(c) SBS ]



위 셔츠는 외국인에게 홍보를 위해..만든 것이며 원가판매 6천원 .독도에서 판매 한국 화폐 사용되기 위하여 6년11월21일 독도에서도 판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선물 합시다, (독도에서찍음)

독도는 지켜놓고 환경보존 합시다, 온 국민이 독도의 심각성을 알고 지키게 합시다.



“日本 독도영토권 주장 조직화”

[제주일보 2007-03-02 00:03]

해양수산개발원 “대응 시급”…  
국내 독자적 연구 시급 지적

일본의 독도 영토권 주장이 점점 조직화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의 독도연구가 일본학자들의 저술, 논문이나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인 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일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연구동향과 우리의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일본 시마네현에 이어 돗토리현 에서도 독도 영토권 확립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는 등 일본에서의 독도문제 대응이 점차 조직화·체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MI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영유권 분쟁은 일본 시마네현 이 2005년 2월 다케시마 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를 설립해 독도에 대한 영토권 확립에 적극 나서면서부터 가열됐다”면서 “다케시마 연구회의 목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 등 독도 영토권 확립을 위한 외교교섭 시도, 정부 내 독도문제 소관조직 설치, 각급 학교에서 독도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MI는 “일본은 독도문제와 관련, 일반인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독도의 일본편입 당위성을 강조하는 포럼활동과 영토반환의 조기실현을 위한 가두시위와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독도연구는 민간학자들이 학술적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해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성과 축적이 미흡한 상황”이며 “게다가 대부분의 독도연구는 일본학자들의 저술, 논문이나 외교자료, 사료에 의존해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학술연구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KMI는 독도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독도문제의 국제재판에의한 해결을 가정한 시나리오 작성 ▲우리주장의 정당성과 논거분석, 미비점 보완 일본내 독도 영유권 주장 확대▲일본 주장의 현황, 논거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도종합정보관 설치와 독도관련 자료 공유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리정부의 대응\*\*\*

우리정부는 과거에는 일본의 일부 사람들이 독도를 일본 땅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 했고 2000년 9월19일에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땅이 명확하다는 일본정부 입장이라며 말을 한 후 KBS는 3일후 방송에서 망언을 삭제했고 그 말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항의 한마디 안 한 대통령 이였다, 북한이 한반도기에 울릉도 독도를 표시 하자 는 것도 우리 대표가 일본과 외교문제 의식하고 두 번이나 거부를 했다니 얼마나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입니까? 참여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독도문제는 상위 개념이라고 했지만 국정홍보처 올해 동해, 독도 등 역사왜곡 대응 홍보예산이 3억5300만원으로 현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정책 홍보에 투입 한 예산은 37억을 넘었으니 독도문제를 상위개념으로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하겠다는 분들과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도 독도문제나 어업협정에 관한 정책은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과 정부가 독도정책을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독도 이상훈

독도표시 한반도기 국제분쟁 조짐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감격적인 남·북한 개막식 동시 입장이 자칫 한·일 양국의 국가간 분쟁을 일으킬 조짐이다. 당시 남·북한 선수들이 힘차게 휘날렸던 한반도기에 독도가 선명하게 표시된 점이 분쟁의 발단이다. 지난 99년 한·일 신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합의한 사실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 측은 한국에 항의 의사를 표시했고 한국 정부 측도 대한체육회를 통해 경위를 파악,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아오모리에 있는 한국 선수단 실무자들은 남·북한 개막식 동시 입장과 관련한 모든 세부 사항을 재삼 확인하며 진상 파악에 고심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한반도기는 북한에서 준비했다. 당초 동시 입장에 회의적이던 한국 선수단과는 달리 사전에 계획하고 있던 북한이 독도가 표시된 한반도기를 일본으로 가져와 한국 선수단에 전달했다는 것. 당시 선수단의 주장 격이던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은 “독도 부분을 지워야 한다” 고 주장했지만 급박하게 진행된 의견 조율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과 지난 해 부산 아시안게임 동시 입장 때도 북한은 독도가 표시된 한반도기를 준비했으나 한·일 관계 때문에 (5면에 계속)



## 독도 국제재판 할 수 없다,

**서론** 일본인 중에 역사왜곡 하는 자들과 극우주의자들이 독도를 뺏으려고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평화선을 선포하고, 10일 만에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니 평화선을 인정 못한다고 항의를 하면서부터 독도분쟁은 시작 된 것이.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땅이니 일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시하면 된다는 정책이다. 엄연한 우리 땅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만들어, 일본어선도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조업 하려면 일본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실정이고, 세계의 대다수 지도가 일본 땅으로 표시하며, 아시아권의 경제인들의 설문조사와 외국의 역사교수들조차 일본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독도주변에 5천톤급 삼봉호를 상주시키며 경비를 한다. 그러나 독도에 군인을 배치하면 일본과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군인을 배치 못한다는 경찰청장의 주장도 있다. 일본의 극우파 4명이 독도에 상륙하겠다고 한 사실도 있었는데 우리국민들은 독도를 빼앗길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이다. 우리 국민 다수가 방심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가 국제재판에서 지면 일본이 무력으로 밀고 들어 올 명분이 생긴다. 국제재판은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을 못하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를 재판장에 끌어내는 정책을 쓸 것이다.

## 본론

일본 시마내현에서 2005년부터 독도의 날 (다게시마의날) 행사를 매년 거행한다. 그 행사장에 모인 인파는 해마다 숫자가 늘어서 추세라면 2015년 독도의 날 행사에는 50만명이 모이고 일본 정부의 요직들과 일본전역의 극우파와 시마내현의 주민 대부분이 참석할 것이다. 행사를 거행하며 한국이 자기네 땅 다게시마를 불법점거하고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일본정부요직들과 극우파지도자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것이며 일본은 다게시마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자는 말을 극우파지도층 입에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연설하는 놈도 역시 그 말에 양념을 쳐서 할 것이다. 어느 놈은 자기네 땅 다게시마에 가자고 단상에서 핏대를 올리며 말을 하는데 궁중들 석에서는 우뢰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올 것이. 행사는 끝이 나고 극우파 한 놈이 단상으로 뛰어 올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다게시마에 같이 갈 분은 부두로 나갑시다!" 외치니 군중 대다수가 박수를 치면서 우리 모두 "우리 땅 다게시마에 갑시다!" 하며 부두로 몰려 나간다, 부두에는 미리 극우파가 준비한 다게시마호(1만2천톤급) 선박이 준비돼 있었다. 다게시마호에 올라탄 인원은 8백여명 되었다. **한편**

일본정부는 국제 여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못 가게 막느냐? 일본극우파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냥 두느냐? 를 가지고 비상회의가 열렸다. 일본의 극우정치인들이 미리 각본을 만들어서 착착 진행되는 일이다. 극우정치인들은 차기에 선거를 생각하고 막으면 안 된다는 말로 다른 정치인들을 설득 한다. 다른 정치인들도 속수무책일 때 우리의 영토에 우리국민들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다른 정치인들을 공격하여 모든 각료들은 애국적인 인사들의 길을 막지 말자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한편** 우리 정부에도 긴급비상회의가 열렸다.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는 회의다. 회의 결과는 경찰함정이 독도영해에 대기해서 막는 걸로 결정을 했다. 해군에게도 비상대기령이 선포 되었다. 북파공작원 출신의 애국자 700명이 우리가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겠다고 정부에 건의를 하며 선박을 준비 해 달라는 연락을 한다. 한편 국민들은 일본을 규탄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벌집을 건드린 것과 같은 형상이 되었다. 시간은 흘러서 우리, 경찰함정 삼봉호(5천톤급)에서 일본의 극우파들이 탄 다게시마호가 보이게 된다. 우리경찰함정에서 다게시마호가 보인다고 상부에 보고를 한다. 상부에서는 다게시마호를 독도영해 내로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지시를 한다. 삼봉호에서는 작은 배가 큰 배를 막으려면 힘이 드니까 승무원 전부가 긴장을 하게 된다. (4면에서 계속)



시간은 흘러서 삼봉호 와 다게시마호가 확정기로 직접 연락이 될 만큼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삼봉호=> 일본말로 “여기는 대한민국 독도의 근해이다. 독도영해가 가까우니 영해 침범을 조심하라! 영해를 침범하는 행위는 국제법위반이다!”

다게시마호=> 한국말로 “무슨 말이냐? 다게시마는 일본 영토다. 우리는 우리영토 다게시마에 상륙할 것이다. 한국경찰은 길을 비켜라!”

다게시마호가 순순히 물러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함장은 급히 상부에 무선으로 보고하고 무기사용을 허락 해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장도 무기사용을 허락하지 못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교통상부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비무장으로 들어오는 민간 선박에 무력을 사용하면 국제적인 규탄대상이 될 것을 염려하여 물대포만 사용하라는 지시를 한다. 그 동안에 해군 독도호(1만3천톤급)가 급파명령이 내려서 울릉도로 향해 중이다. 정부는 또 북파공작원 출신의 애국자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1만5천톤급 화물선을 주게 되고 북파공작원 출신의 애국자들은 몽둥이와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을 하고 독도로 출발 하였다.

**또 한편** 일본은 독도주변 해상에서 혹 일어 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을 예상하고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을 오키도 주변으로 급파하며 해상보안청소속의 경비함들도 공동어장으로 급파한다. 삼봉호와 그 외 1천톤급 해양경찰 함정들과 다게시마호가 마주 보게 되었다. 장소는 독도영해 5키로 전방 공동어장이다. 삼봉호 함장=> “일본인들은 독도 영해에 들어 올수 없다. 돌아가라!” 다게시마호=> “다게시마는 일본 땅이다. 우리 땅 우리가 들어가는데 왜 한국경찰이 막으려 하는가?” 삼봉호 => “독도는 한국 땅 이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다게시마호=> “한국경찰이 있는 것은 불법점거다. 한국경찰은 물러가라”며 다게시마호는 독도를 향하여 속도를 가속하고 있었다. 이제는 독도영해를 다게시마호가 들어서고 있었다. 삼봉호와 우리경찰 함정에서는 물대포를 쏘기 시작해다. 그러나 독하고 독한 왜놈들 그대로 밀고 들어온다. 우리 경찰은 총을 겨누며 일본의 선박에 물러가기를 종용한다. 다게시마호에서는 쏠태면 쏘라는 식이다.

그러나 쏘지 못 한다. 발포 명령이 없었기에..... 독도로 향한 북파공작원 출신의 애국자선박이 다게시마호와 마주하여 북파공작원 출신=> “우리는 너희들의 독도침략을 막으려고 온 한국국민이다! 돌아가라!” 다게시마호=> “다게시마는 일본 땅 이다. 한국이 물러가야 한다.” 독도해상에서 일본 배와 북파공작원 출신을 태운 배가 부딪히고 공작원출신의 애국자들이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다게시마호로 뛰어 들었다. 700명의 애국자와 800명의 일본극우파들의 싸움은 시작되고 머리가 터져 죽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사상자는 쌍방이 600여명이 나게 되는데....., 일본해상자위대 이지스함과 해상보안청 경비정들이 독도근해에 오고.....

우리의 해군함정도 독도근해에 모여서 서로 언제함포를 쏘지 모르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이때

**미 백악관에서 독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하라는 연락이 세계 각국으로 방송을 통하여 전달 된다. (평화적 해결은 국제재판으로 해결 하라는 말이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과 세계 각국의 대사들과 정상들이 평화적 해결이 좋다는 박수를 보내게 된다.** 우리 정부와 여·야당에서는 재판에 질 염려도 있으니 재판은 말아야 한다는 측과 재판을 안 하면 국제적 고립을 면 할 수 없으니 재판해야 한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이렇게 된다면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10만 양병론을 무시한 선조임금이 의주까지 피난을 간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재판에 동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고립될 찌라도 재판을 안 할 것입니까?**

**일본과 전쟁을 할 것입니까?**

**결론** 일본과 분쟁을 염려하여 우리 땅을 마음대로 못한다면 우리 땅이라 할 수 있나요? 일본을 무서워 말고 우리 독도를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못 한다면

‘국제 법으로 점점 불리해 진다는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잘 못하면 가정이 망하고 정치인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 합니다. 우리 국민이



망 합니다. 독도를 지키려면 독도의 관련법을 아래 사항으로 고쳐야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정부와 국회가 독도관련법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독도를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2000년부터 서명을 받습니다. 저와 남들이 함께 모두모두 서명을 받아주셨다면 2천만명 벌써 받았을 것입니다. 어느 정부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안 하겠습니까? **이글은 가상으로 쓴 글입니다.** 독도사수대 카페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독도 이상훈

**독도분쟁 4월중 다시 터지는데 정부사령탑이 없다!**

독도분쟁, 4월중 다시 터지는데, 독도분쟁 대비, 정부 내 '사령탑'이 없다 대책팀 유명무실 책임자도 공식...부처별 엇박자 일본, 책임 장관 임명 국제수로기구에서 결판 준비 지난해 4월 동해의 수로측량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촉즉발의 외교 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올해는 결판을 내기 위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정부는 대책팀조차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일본이 지난 해와 같은 4월 중에 다시 동해 수로탐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 해에는 건드려 보는 차원이었다면 올해에는 7월 국제회의에서 결판을 내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이면 한-일 양국은 EEZ 획정협상에 이어 동해 명칭, 독도 인근 해역의 해저지명 문제를 놓고 국제기구에서 한판 대결을 벌일 상황이다. 국제수로기구(IHO)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가 UN지명회의를 열어 동해의 해저지명 문제를 집중 토의 할 예정이다. 해저지명은 해저자원 개발, 항해에 필수적이지만 동해에는 모두 '일본분지', '야마토 분지', '쓰시마 분지' 등 일본 명이 붙어 있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쓰시마 분지를 '울릉분지'로 바꿀 것을 주장해 이번 회의에서 결판을 내야할 상황이다. 8월엔 국제수로기구 총회가 열려 '일본해' 명칭을 '동해'로 바꾸는 문제를 다룬다. 특히 5년에 한번 열리는 총회이기 때문에 이 총회에서 밀리면 다음 5년 동안 우리 입장이 밀릴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미 '해양 정책 일원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내각부에 '종합 해양 정책 회의'를 설치하고, 총리가 의장을 맡도록 했다. 해양기본법 안으로 이름 붙은 이 법은 '해양 정책 담당 장관'을 중심으로 국가의 해양 정책 추진체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해양 영토문제를 전담하는 '영토담당 무임소 장관'도 임명했다. 반면 한국은 EEZ 특별반을 만들었지만 국장급에 불과한 책임자도 공식으로 두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 독도-EEZ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다른 업무와 중첩되는 바람에 이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EEZ 대책반 업무담당(심의관급)은 정식 직제에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외무부에는 국제법국이 따로 있다. 이 곳이 독도, 동해 문제의 참모부 역할을 맡는다. 우리 외교부에는 조약국 국제 법규 과가 있지만 이곳은 6자회담 등 각종 양자, 다자 교섭 자문 역할과 외교부의 소송, 분쟁까지 떠맡아 독도문제에 진력할 수 없는 구조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교부 조약국 확대'를 약속했지만, 아직 실행된 바는 없다. 이런 가운데 유관 기관인 해양수산부는 해양 법규 팀을 신설해 부처별 따로 놀기에 나섰다. **익명의 국제법 전문가는 "일본은 별도기구가 없더라도 관료문화상 특정 이슈에 대해 일사분란하게 대응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며 "사안이 터진 후면 외교부는 또 한번 국민적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송호 기자 2007. 4. 12. 내일신문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http://www.dokdocenter.org)

**(2면 것 추가)**

교체한 선례가 있다. 이에 대해 신현택 한국선수단장은 "아직 공식 항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일부 선수단 관계자들은 "현재 경위서 작성 등으로 선수단 지원업무도 소홀히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를 통한 남·북한 대화합이 한·일 간의 미묘한 영토 분쟁으로 인해 퇴색되는 듯해 못내 아쉽다. 아오모리(일본)= 이동현 기자 [kulkuri@dailysports.co.kr](mailto:kulkuri@dailysports.co.kr) 2003/2/5/ 한국일보

**표준말과 사투리**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을 부산사투리는 "땡기는데 걸거치서 우야고" 입니다. 독도사수대 본적이 독도 이상훈



독도는 우리 땅 1인 캠페인 (부산MBC)

APEC기간 각국 정상과 각료, 언론인들에게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리는 1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도사수연합회 소속 59살 이상훈씨는 오늘 정상회의장이 있는 동백섬 입구에서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1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민성빈 ] 2005-11-16



05년11월16일15시경 APEC회의장 입구 외국인정상과 각료 언론들에게 홍보하는데 17일 경찰에게 압수 당 했습니다. 정부는 못하면서 국민이 하는 것도 막는 정부 잘 하는 짓입니까?



05년11월17일 15시경 APEC회의장 입구에서 경찰이 현수막을 압수하는 장면 인데 한국 경찰인가? 일본경찰인가? 일본 총리 고이즈미 기분 상할까, 염려하여 캠페인 을 막았다고 본다,



05년 11월16일 15시경 APEC회의장 입구 외국정상과 각료 언론들 에게 독도 이상훈 캠페인 하고 있다.



독도의병들이 독도에 가서 독도정상(동도)에서 온 국민들에게 독도 지키기 서명운동을 한다고 알립니다.



6년 2월15일 독도의병대 행사에 참여한 독도향우회, 독도사수대 ,회원 들



# 청원서

복사해서서 서명  
받아 보내주세요

(아래 서명인은 아래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 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 내.외에 홍보 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독도 의용수비대를 국가 최고 유공자로 모시고 독도 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번	성명	주소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햄독도사랑회 (6LØWL) <http://cafe.daum.net/HAMDOKDOLOVE>  
 독도사수대 <http://cafe.daum.net/anadok> (서명운동자: )  
 보낼 곳: 612-8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3동 1595-29 상정주택 401호 이상훈 010-5844-4485



#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부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 내.외에 홍보 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독도 의용수비대를 국가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일 이업협정을 파기하여 바다영토의 수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독도를 위한 이번 서명운동은 매우중요 합니다.\*  
\*독도 지키기 서명운동에 힘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서명	소속	서명
신영하	청양대석가약수 5층대영에약수	신영하
이정희	진주위대 유수 / 3층방	이정희
김영우	진주위대 3층방 / 3층방	김영우
이상민	서울대 3층방 / 3층방	이상민
이정희	독나원리 1층방	이정희
김병환	주방 1층 / 3층방	김병환
임병진	진주위대 3층방	임병진
나홍주	진주위대 3층방	나홍주

## 햄독도사랑회

<http://cafe.daum.net/HAMDOKDOLOVE>

### 마치면서 드리는 글

독도를 지키려고 전 국민이 노력해야 하는데 일부의 국민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독도행사에 참여하는 분은 너무 작습니다, 언론들은 일본의 망언이 있을 때마다 조금 언급 하면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독도를 지키겠습니다, 현수막이 붙이고 유명단체도 독도를 지킵시다, 는 현수막이 붙지만 평시에는 독도 문제가 조용하기만 합니다, 독도를 어떻게 지키겠다는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독도를 문화로 지키고 국제여론으로도 지킬 수 있게 홍보비를 많이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 국제법 교수님들이 지지하신 청원서에 서명을 많이 해서 독도정책을 고치도록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독도를 지키는 분들도 이 방법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독도를 지키자는 구호에만 그쳐서는 독도를 지킬 수가 없고,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행동을 해야 독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반크는 국제적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기관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반크의 요구로 동해와 병기해서 표기 하게 되었답니다, 미국은 아직도 일본해 단독 표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국력이 우세하다면 독도를 지킬 운동이 필요치 않으며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독도가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용지를 복사해서 서명을 받아 보내주시기를 부탁 합니다, 서명운동 하신 분은 몇 명을 받은 것을 표시해서 독도박물관에 보존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후손들에게 교육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서툰 편집이지만 독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까, 정성 것 만든 것입니다, 원고를 독도사수대 카페에 올려 주시면 다음호에 지면이 활용 되면 올리겠습니다, 독도사수연합회 운영자 독도 이상훈 이메일 : [lsh54a@hanmail.net](mailto:lsh54a@hanmail.net)  
이메일 [ds5ean@yahoo.co.kr](mailto:ds5ean@yahoo.co.kr) 홈페이지 <http://kr.geocities.com/ds5ean/>  
우편번호 612-816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3동 1595-29번지 상정주택 401호 전화 051-782-9174

청원서를 복사 해서 서명 받아 보내 주십시오,